

전문가의 통찰모아 국가상징구역 방향성 잡는다!

- 5월 20일(수),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 개최
- 국가상징구역 성공적 조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5월 20일(수)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상징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는 도시, 건축, 조경, 역사·문화, 언론, 인공지능·스마트, 안전 등 총 7개 분야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분과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시민분과 50명과 함께 국민자문단을 이루어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국민자문단 운영계획 등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적인 공간구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국가상징구역이 단순한 도시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대표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상징구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서도 상징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간구조, 경관축, 공공건축 배치,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광장·공원 등 공공영역 간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상징구역이 일회성 기념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 될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도시경관, 역사·문화적 상징성, 미래지향적 공간 경험을 조화롭게 담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인공지능, 스마트 안내체계 등 미래기술은 방문자의 이해와 체험을 높이고 공간 운영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되었다.

행복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향후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구조, 교통체계, 경관계획, 공공공간 구성, 스마트기술 적용, 안전성 확보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분야별 추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구체적인 국가상징구역 조성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추진현황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자문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박상옥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물리적 공간에 구현하는 역사적인 과제”라며, “도시, 건축, 문화, 기술,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통찰을 폭넓게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가상징구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 사진

담당 부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소통협력팀	책임자	팀 장	한미진 (044-200-3480)
		담당자	사무관	김청희 (044-200-3378)



<박상옥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왼쪽에서 여덟번째)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전문가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가상징구역 공간구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